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8월 2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히브리서 11장 1-3절

설교제목 : “믿음은”

오늘 본문은 믿음장이라 불리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에스틴’입니다. ‘**믿음은..이요**’에서 ‘..이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스틴’입니다. ‘에스틴’이 문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이 단어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에스틴’은 직설법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시제는 항구적으로 항상 그러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믿음의 본질이 항구적인 것이란 의미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강조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답은 해법이 아닌 믿음이 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과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됩니까?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이란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소망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이란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 혹은 ‘보증’, ‘현실화’란 의미로도 보지만, ‘실상’은 떠받드는 ‘토대’, ‘기초’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떠받치고 있는 토대, 기초란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던 간에, 그 소망에는 어떤 믿음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토대,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사가 모두 믿음에 기초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인생의 소망하는 것이 서로 달라지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인생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소망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믿음에 기초합니다.(3절)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첫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둘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셋째,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첫 번째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만 나머지 두 질문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 창조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수십 억년 전에 무계획적으로 진화된 결과물이라면, 우리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창세기 1:1이 선언으로 기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의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니”**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그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뜻과 말씀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진정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고 확고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기초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려 놓고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별과 같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였습니다. 그 이삭조차도 100세가 되기 전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히11:17-19)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지 사라의 무덤을 그것도 자신의 돈을 주고 샀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평생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 본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눈이 열린 자입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현재 실재하지 않아도,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삶의 현재 속에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현재 칠혹과 같은 공허하고, 무질서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의 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비록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실재적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희망성쇠가, 살고 죽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봅시다.
- 3)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코로나 시대에 더욱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든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왜 혼돈의 시대에 믿음이 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